

01 교회소식

‘만민’은 하나!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더욱 하나 된 일본 선교 출장 관련 소식과 콜롬비아만민교회 ‘데이시 빠떼르니나’ 성도의 간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지만 성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한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3)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으로 2004년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감동을 되새기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04 간증

“은사집회 통해 속 시원히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외상성 뇌출혈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받은 허신경 집사와 60년 된 외이도염을 치료받은 박영희 권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79호 2019년 3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더 큰 부흥과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이다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및 일본 총회 주의 종, 일꾼 교육



지난 2월 24일과 25일, 예수교연합성결회 교단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는 일본 선교 25주년을 맞아 이다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및



일본 총회 주의 종, 일꾼 교육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2월 24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일본 선교 25주년 및 이다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예배 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파워워십팀의 특송에 이어 이 목사는 ‘신부의 자격’(마 25:1~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축하예배 및 축하공연이 노인복지시설 ‘미츠바사’ 홀에서 있었다. 1부 축하예배 시 이 목사는 오전 주일예배에 이어 ‘신부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전

했고,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서는 파워워십팀을 비롯하여 나고야, 동경, 이다만민교회의 예능팀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자리에는 아사히가와, 야마가타, 동경, 요코하마, 마쓰모토, 나고야, 오사카, 오카야마, 오키나와 등에서 많은 주의 종과 성도가 참석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며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5일(월) 오후, 이 목사는 이다만민교회에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 ‘미츠바사’를 방문해 노인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그 뒤 예수교일본연합성결회 총회 주의 종, 일꾼 교육이 이다만민교회에서 진행됐다.

이 목사는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축복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영적 장수로 나와 큰 부흥을 이룰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일본 선교의 초석이 된 이다만민교회는 기독교 자체를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사회봉사라는 아이টে임을 접목해 자

연스레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다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정식 가입하고 노인 복지에 힘쓰며, 학생 선도에 기여하고자 인형극, 워십 공연 등 폭넓은 자선 활동을 병행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선행이 마스크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이다시로부터 감사대회장 상, 이다시 시장 상을 받았으며, 교회 부설 노인복지시설 ‘미츠바사’를 통해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개최한 1994년 ‘이다 지역 연합대성회’, 1996년 ‘신슈 지역 연합대성회’ 때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비틀어진 팔다리가 펴져 걷고 뛰는 등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성결의 복음을 일본 전역에 전파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나고야 신유대성회’ 때에는 13명의 농아들이 참석해 듣고 말하는 등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이 무수히 나타남으로 일본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에는 10개 지교회, 1개 협력교회, 1개 가정교회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다.

“18년 만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차로 16시간 거리에 있는 마강계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엔라체(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였지요.

콜롬비아만민교회(담임 장정연 목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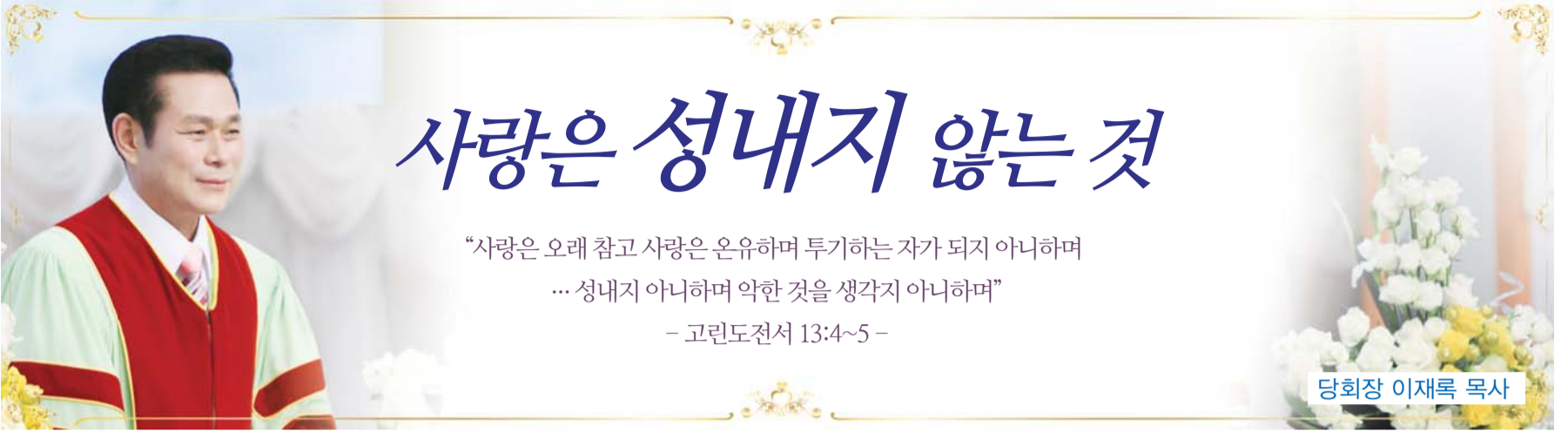
저는 18년 동안 자궁근종으로 인해 생리 때가 되면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게다가 생리 과다로 인한 빈혈과 만성피로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술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은사집회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요.

지난 1월, 은사집회 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뒤 1주일 후 생리가 시작되었으나 통증도 없었고 빈혈과 만성피로감도 못 느껴 치료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은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이 병명들을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등 통증’이라는 말씀에 “아멘!” 했는데, 그 즉시 심했던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도 체험했지요. 요즘 저는 매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데이시 빠떼르니나 성도 (콜롬비아, 50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5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지만 성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냄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하지요.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놓는 대표적인 덫이 바로 미움과 성냄입니다. 성내는 것은 단지 격렬히 화를 내고 큰소리로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변하는 것, 말투가 통명스러워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내는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있는 미움, 불편함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표정만 보고 '화가 났구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전 뜰에서 헌금할 돈을 환전해 주거나 제물로 드릴 가축을 사고팔았지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돌변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이들의 의자를 엮으셨지요. 사람들이 볼 때 화를 내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분을 내신 것입니다. 비록 좋은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셨지요. 이는 결국 공의로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의분과 성냄의 차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침 안식일이라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을 엿보았는데, 만일 환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송사하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막 3:4). 그들은 대답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막 3:5).

오직 선만 행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강하게 책망하심으로 어찌하던 깨우쳐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의분을 내신 것도 영혼들을 깨우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이처럼 성냄과 의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성결되어 죄가 없을 때 의분 또는 책망을 통해서도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반면에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2. 사람들이 성내는 이유

먼저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마다 성장한 환경이나 배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교양이 다르며 판단 기준이 다른데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니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성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앞서거나 나은 위치에 있으면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요. 물론 위사람을 존중해 주고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아랫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뜻에만 따르기를 바라는 경우이지요.

이 외에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자신의 지시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쉽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내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쁜 감정부터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먼저 감정을 자극하고 결국 성내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감정이 상한다'는 단어가 바로 성냄의 전조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고, 영적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나쁜 감정이 있는 이상 진리로 변화될 수 없으니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험기나 분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며(고전 3:16)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험기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감정의 영감을 받아 권능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문둥(한센)병을 고치고 기도로 적군을 물리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요. 또 수질이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넣어 좋은 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서는 드물게 병들어 죽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벤엘로 올라갈 때입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몰려 나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왕하 2:23) 조롱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아이가 몰려와 조롱하는 통에 엘리사는 곤혹스러웠습니다. 타일러도 보고 큰 소리로 꾸짖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만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벤엘은 분열왕국 시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이상숭배 본거지입니다.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라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마음조차 강박했을 것입니다. 길을 막고 서서 침을 뱉기도 하고 욕하며, 심지어 돌맹이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니 그때 근처 수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뛰쳐나와 순식간에 아이들을 물어뜯어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비록 아이들의 심한 조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엘리사에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가 병들어 죽은 일은 이와 무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깨우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약 1:20).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4. 성내지 않는 사랑을 이루려면

스프링은 누를수록 더욱 강한 반동력이 생겨 손을 떼는 순간 튀겨져 오릅니다. 화를 눌러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눌러 참는다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한다 해도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내지 않는 사랑을 이루려면 성내게 하는 감정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을 것이 없도록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감정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선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에는 '지금 이 순간 성내는 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다 보면 성나게 하는 감정까지 차츰 버려집니다. 예전에는 열 번 화내던 것이 아홉 번, 여덟 번, 점점 줄어들지요. 나중에

는 아무리 화가 날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잠 12:16, 19:1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말과 행실로써 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3 >>>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3)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 17:1~2)



***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곳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체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셨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해발 588m의 변화산 정상은 초막 셋뿐 아니라 그 이상도 지을 만큼 넓은 평지로 되어 있었다. 변화산은 예수님 당시의 신령한 빛들과 소리,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케 하는 므깃도**

다불산이라고 부르는 변화산 정상에서 내려온 순례단은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케 하는 므깃도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므깃도는 북쪽의 시리아 지방과 남쪽의 애굽을 왕래하는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로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므깃도를 세상 끝날의 아마겟돈 전쟁터로 예시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B.C. 1230년경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편을 점령했고 므깃도 성채도 점령하였다. 솔로몬왕 때 므깃도가 번창했으나 B.C. 723년에 앗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폐허가 되었다.



***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는 헤롯왕에 의해 건설된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이다. 항구와 고가 수로, 야외 원형극장,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과 궁전 유적 등이 남아 있어 당시 건축기술을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



가이사랴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석에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항구도시 가이사랴에 주재했다는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며 세례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마침내 도착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 그늘진 느낌으로 와 닿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흘리셨던 눈물이 지금도 느껴지는 곳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통곡소리도 들려오는 듯했다.

순례단은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서 정장 차림의 정통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은혜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그늘진 얼굴이었으며 웃이나 모자도 온통 검정색이었다.

“외상성 뇌출혈, 하나님 사랑으로 신속히 사라졌어요!”

허신경 집사 (43세, 1대대 8교구)



2018년 12월 25일(화),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구두 굽이 걸려 계단 위에서 인도로 고꾸라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X-ray와 CT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ARS(자동응답서비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자, 이내 떨리고 긴장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날 검사 결과, 의사는 출혈이 의심된다고 입원하여 MRI 정밀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MRI 촬영 검사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하출혈'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기에 다행히 수술은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의사는 뇌를 다쳐 머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머리가 흔들려 똑바로 걷기 힘들었고 구토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과 육신의 생각 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한 뒤 병원에 심방오신 주의 종님들에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자 구토 증상이 사라져 식사하기가 수월해졌지요.

병원에서는 못해도 2주 이상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은 후 몸이 많이 호전돼 주일예배와 송구영신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저는 믿음으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청했더니 의사는 CT 촬영 결과, 신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12월 29일 퇴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새해 1월 1일 새벽 3시까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 어지럼증과 몸이 왼쪽으로 쏠려 혼자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 1일(화) 밤 9시에 열리는 새해 첫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믿음으로 참석하였지요. 그동안 충성한 다 했지만 더 마음을 실어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 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니 어지럼증과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와 간증수기 『멈추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초심을 잃고 무뎠던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며,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마음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1월 15일(화)에는 이복님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묵직한 두통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17일(목),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 보니 머리에 고여 있던 피가 말끔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더욱이 1월 25일 금요일예배 2부 은사집회 시 회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 환자기도를 해 주신 뒤에는 조금 남아 있던 어지럼증까지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아도 전혀 어지럼증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후유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주님, 그리고 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60년 된 왼쪽 귀의 외이도염을 치료받아 잘 들립니다”

박영희 권사 (67세, 1대대 4교구)



어릴 적 물놀이를 하다가 왼쪽 귀에 물이 들어간 뒤로 귀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후비려고 하면 통증이 있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그냥 참았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왼쪽 귀를 후비면 아파서 귀 주변만 살살 긁고 고름이 나오면 면봉으로만 한 번씩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간 귀지도 제대로 빼내지 못했고, 간혹 귀가 먹먹해질 때면 잠시 소리를 전혀 못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익숙해져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러던 2018년 말에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던 중 저의 강한 의와 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일(수)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이 성도님들의 건강을 기도제목으로 주시면서 녹음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틀어주셨지요.

그날따라 기도를 받는 제 마음이 매우 뜨겁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경이었습니. 저는 평소 왼쪽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 때면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귓바퀴에서 무엇인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1cm 정도의 길쭉하고 시커먼 귀지 같이 보이는 이물질 2개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소리도 잘 들리고 제가 왼쪽 귀를 건드려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오른쪽 귀를 막으면 왼쪽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오른쪽 귀를 막아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귀가 더 잘 들립니다.

60년 된 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받은 후 귓속에서 나온 이물질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5-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류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산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